



최경주가 16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오픈골프 1라운드 16번홀 페어웨이에서 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위성미, 이젠 LPGA에 전념해야”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16일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챔피언스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한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이 자신과 닮은 꼴이라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우승으로 PGA 투어 진출 이후 시즌 최고 상금을 벌어들인 최경주는 16일부터 열리는 EPGA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UBS 홍콩오픈에 출전, 시즌을 마무리한다. 다음은 경기를 앞두고 최경주와 가진 일문일답.

-올해 시즌을 결산한다면.

▲시즌 초반 천천히 진척이 되다 막판에 크라이슬러 챔피언십 우승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 의미가 있는 한해였다. 내년

■ 최경주 일문일답

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다. 4승 목표가 2년후에나 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큰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우승으로 PGA 투어 진출 이후 시즌 최고 상금을 벌어들인 최경주는 16일부터 열리는 EPGA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UBS 홍콩오픈에 출전, 시즌을 마무리한다. 다음은 경기를 앞두고 최경주와 가진 일문일답.

이 들었다.

-최근 양용은 선수가 우승했는데 다른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느낌은?

▲후배인 양용은 프로는 성실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남자다. 골프로선 집안이 잘 다져져야지 바깥 생활과 시합에 큰 힘이 된다. 이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한다.

-미셸 위에 대한 골프계의 생각이 엇갈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많은 대회를 통해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겸증이 됐다면 PGA 투어 보다는 LPGA 투어에 더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무리 훈련이 한창인 경남 남해 캠프에서 KIA 신인투수 양현종(18·왼쪽)과 오준형(22)이 내년 시즌 활약을 다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내년 20승 합작…신인왕 라이벌”

양현종 변화구·제구력 강점…제2 류현진 기대

오준형 슬라이더 수준급…체인지업 훈련 전념

‘새내기’ 오준형(22)과 ‘막내’ 양현종(18·이상 KIA)이 때이른 신인왕 경쟁으로 남해 캠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6일 경남 남해 캠프에서 마무리 훈련이 한창인 양현종은 “부상없이 팀 선발로 뛰는 게 첫번째 목표고, 10승 이상을 올려 신인왕을 차지하는 게 두 번째 목표”라면서 “올 시즌 2차 1지명으로 출발해 신인왕에 오른 한화 류현진 선배의 기록을 뛰어넘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2007년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양현종은 경기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변화구의 제구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기대주다.

양현종은 올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평균자책점 1위(9.2이닝 무실점)로 한국을 6년만에 정상에 올려놓으며 특급좌

완’으로 유명세를 탔다.

다만 볼의 스피드(최고 구속 144km)가 다소 느리고 결정구가 없다는 게 단점.

양현종은 내년 시즌 전까지 자신만의 주무기를 정착하는 게 목표다. 현재 연마중인 결정구는 직구로 오다가 타자 앞에서 속도가 줄어 툭 떨어지는 ‘서를 체인지업’.

김태원 KIA 투수코치는 “서를체인지업만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현종과 함께 ‘신인왕’을 꿈꾸는 또 한명의 새내기는 오준형. 2007년도 신인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오준형은 슬라이더가 수준급, 특히 상대 타자를 상대로 한 두뇌 플레이가 뛰어나고, 불꽃이 좋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준형은 올해 인하대 제학중 9경기에 출전, 46.1이닝동안 4승 무개 평균자책점 0.78, 탈삼진 60개, 15사구를 기록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35경기 105이닝 평균자책점 4.37, 3승7패의 평범한 성적표를 받았으나 뒤늦게 꽂을 피우고 있는 차세대 유망주다.

약점은 평균 138~141km를 오가는 직구의 부족한 파워와 멋진 한 차례인자.

10승 이상을 세워 ‘신인왕’을 목표로 눈 오준형은 연일 웨이트 트레이닝 등 파워업 훈련과 함께 체인지업 연습에 전념하고 있다.

사실 KIA는 해태시절을 포함해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을 탄생시켰지만, 신인왕은 1985년 이순철이 유일하다.

그래서 인지 때이른 신인왕 경쟁에 달아 오른 새내기 2인방이 더욱 든든한 뿐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두 선수 모두 무한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기대주”라면서 “아직은 즉시 전력감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향후 2~3년 안에는 최정상에 오를 수 있는 선수들”이라며 강한 신뢰감을 보였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빅스포 스폰서십 계약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 내방동 KIA 타이거즈 사무실에서 종합 피트니스 센터인 빅스포(BIGSPO)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빅스포는 이날 선수단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피트니스센터 내 헬스클럽과 사우나, 짐질방을 이용할 수 있는 195천여만 원 상당의 연간 회원권(1년)을 제공했다.

KIA는 빅스포에게 이벤트와 각종 광고 구단 로고와 선수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선수 팬사인회를 열어 상호 스폰서십을 돋독히 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6일 KIA-빅스포가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다. 원희준 운영부장, 이창호 부시장, 하상호 사장, KIA타이거즈 허영택 부단장, 김경욱 마케팅팀 과장, 오현표 운영팀장.

KPGA ‘Q-SCHOOL’ 최종전

함평다이너스티CC서 27일 개막

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2007 Q-SCHOOL 최종전(3차전)’이 4개월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오는 27~12월 8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07 Q-SCHOOL’ 2차 전을 통과한 총 340명이 출전해 오는 27~12월 2일까지 6일간 예선전을 치러 100명을 선발한다. 예선전을 통과한

100명은 12월 5~8일까지 4일간 본선을 치러 내년 1부투어 출전자 45명을 선발하게 된다. 예선전은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지며 본선은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다.

총상금은 1억원이며 우승상금은 2천만 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아 거포’ 이승엽 귀국

일본 프로야구 진출 3년만에 최고타자로 우뚝 선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1개월여만에 귀국했다.

이승엽은 16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아내 이송정씨, 아들 은혁군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입국했다.

이승엽은 대구 시내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삼체 위주의 훈련을 하고 12월 중순부터 배팅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난 달 수술을 받은 왼쪽 무릎 검진을 위해 일본을 오갈 예정인 이승엽은 내년 1월 말 일본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양용은, 우즈와 리턴매치…첫날 완파

JPGA 던롭피닉스토너먼트

한때 ‘호랑이 사냥꾼’으로 성기를 드높였던 ‘야생마’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나흘 만에 가진 리턴매치에서 첫날은 완파했다.

양용은은 16일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의 피닉스골프장(파70·6천907야드)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 던롭피닉스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버디는 1개 밖에 잡아내지 못하고 보기 5개나 쏟아내 4오버파 74타를 쳤다.

출전 선수 84명 가운데 공동 57위로 밀린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 컷오프당할 위기에 몰렸다.

2004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우즈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끓어 3언더파 67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포진했다.

선두는 5언더파 65타를 친 기타야마 신고(일본)가 뒤쳤다.

김종덕(45·나노소울)은 2오버파 72타를 쳐 공동30위에 올라 이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